

1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10.36 (-23.09)	765.79 (-8.02)
금리 (연-0.02%)	환율 (원-달러)
2.880 (-0.026)	1362.90 (+1.60)

위기의 삼성, '차세대 HBM4'로 반도체 리더십 사수

엔비디아 HBM4 탑재 계획 발표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 타개 위해 고수익 '6세대 HBM4' 개발 사활 조직혁신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가 반도체 리더십 사수를 위해 내년에 첫 선을 보일 고대역폭메모리(HBM) 6세대 'HBM4'를 반전 카드로 삼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HBM은 해마다 신제품이 나오는 만큼 빅테크들은 매년 최신 HBM을 찾고, 내년에는 HBM4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3분기 반도체(DS) 부문 실적 악화에 대한 사과문을 내고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위기 타개를 위해 고수익 제품인 HBM의 최대 수요자 엔비디아(NVIDIA)가 HBM4 탑재 모델 계획을 밝힌 데 따라 신속한 HBM4 개발에 사활을 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낮은 조직문화 쇄신과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LSI까지 아우른 사업 범위 정리에 돌입했다.

16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내에서 희망퇴직과 함께 사업부 내 인력 이동이 계속되고 있다. 경쟁사보다 앞선 6세대 HBM 개발이 목표다.

올해 2월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HBM3E 12단을 선보이고 올해 3분기 중

에는 엔비디아(NVIDIA) 납품 및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분기 HBM3E 8단을 3분기 중 양산하겠다고 밝힌 후 추가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퀵(성능) 테스트를 못 넘었다는 게 기정 사실화됐다. 현재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에 HBM3E 8단을 납품 중이다. 더불어 두 기업은 9월 HBM3E 12단 양산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HBM3E가 아닌, HBM4 개발을 통해 전세역전을 노리고 있다. 엔비디아가 내년 출시할 주요 제품에 HBM4 적용을 예고한 탓이다. 엔비디아는 내년 출시할 차세대 최고 프리미엄 모델 GPU '루빈'에 HBM4 8개, 2027년 출시할 '루빈 울트라'에 HBM4 12개 탑재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현 최고사양 모델인 블랙웰 울트라에 HBM3E 12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준프리미엄 모델인 B200A에 HBM3E 12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가 계획한 칩셋이 기존 블랙웰의 HBM3E 보다 더 많은 HBM을 요구하는 만큼 선제적인 HBM4 개발이 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키워드라는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직에 관한 다양한 비판을 수용하며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개발 토대 마련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연말 인사를 내고



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감시기구 출범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출범한다. 한·미·일 등 11개국 이 기구에 참여한다. 지난 4월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감시 기구의 공백이 생긴 지 약 6개월 만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가운데)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키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대북제재관련 대외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조직 개편을 진행했으나 이미 일부 조직은 인사 이동과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고령화 한 조직 쇄신과 다각화 하는 과정에서 집중도가 떨어진 사업 정리도 진행된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금리 내리자 가계부채 '경고등' 전세·정책대출 DSR규제 검토

은행 가계대출 잔액 5.7억 증가 주택거래 증가한 8월분 미반영

◆ 금리인하, 집값·가계부채 상승 부추겨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기조가 3년 2개월만에 완화(금리인하) 쪽으로 전환했지만 가계부채 측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매매 거래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실행되는 만큼 매매가 급격히 증가한 8월분이 반영돼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5월 3만9000호→6월 4만3000호→7월 4만8000호→8월 4만2000호로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5월 1만8000호→6월 2만3000호→7월 2만7000호→8월 2만2000호로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가계부채 불씨가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에 이른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0% 상승해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가 10~11월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매매 거래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실행되는 만큼 매매가 급격히 증가한 8월분이 반영돼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기업, 중소브랜드 업고 수출 선봉장 서다

K뷰티 돋보기

〈上〉 K뷰티 열풍 3분기 화장품 수출액 10조 달성 실리콘투, 인디브랜드 해외 유통 애경산업과 손잡고 마케팅 해외 영업·물류시스템 구축 활발

해외 시장에서 'K뷰티' 인기가 높다. K뷰티의 성장으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뿐 아니라 원료제조, 개발, 용기 제작, 유통 등 다양한 분야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K뷰티 주역들의 인기 배경과 전망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화장품 수출 누적액은 74억달러(약 10조원)를 달성

했다.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62억달러(약 8조3706억원)에서 19.3% 증가한 규모다. 역대 연간 수출액이 가장 컸던 지난 2021년의 3분기 기준 누적 수출액과 비교해도 8.8%나 성장했다.

이처럼 화장품이 수출 효과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 유통망, 영업, 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한 유통 기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16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K뷰티 유통 기업 실리콘투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3312억원, 영업이익 683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3%, 385% 증가했다. 실리콘투는 이미 조선키미, 코스알엑스, 스킨천사 등 국내 인디브랜드를 해외 시장에서 유통해 K뷰티 브랜드 전파력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국내 뷰티 브랜드 기업들과 협업을 지

속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뷰티 대기업인 애경산업의 경우 지난 4월 실리콘투와 미국 화장품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애경산업은 자사 대표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를 실리콘투 미국 1호 오프라인 매장 '모이다'에 선보이는 등 실리콘투와 함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미국 소비자 피피색에 맞게 개발된 제품을 내놓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현지 전용 상품으로 선풍제 제품군을 출시할 계획이다. 실리콘투는 미국 서부 현지 법인을 통해 지난 6월 공개한 첫 글로벌 오프라인 매장 '모이다'를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 제품들을 한번에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창하 기자 mlee236@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3심 확정 후 과세…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 /사진 뉴스1
▲ 대통령실 시민사회1비서관에 주관성 선임행정관 승진 임명

▲ 국세청장,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의혹에 “탈루 혐의 있으면 언제든 조사”
▲ 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레드팀 회의… 이르면 내일 처분



▲ 美 캠벨 “MSMT 출범 대단한 성과… 여타국 합류 원할 것”
▲ 북 도로 폭파로 중단됐던 안보관광 재개… 합참의장은 방미 취소 /사진 뉴스1